

광화문캠핑촌/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일 자	2017. 3. 20	문 의	송경동 (010-8278-3097)
수 신	귀 언론사 문화/사회부 기자		
제 목	박근혜퇴진 광화문 캠핑촌 '넉달보름' 해단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142일간의 캠핑을 정리합니다 3월20일(월) 광화문 캠핑촌 '넉달보름' 해단 기자회견

- 11월4일(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캠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3월20일)로 137일차입니다. 광화문캠핑촌은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시민정부 구성을 위해 문화예술인, 해고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손배가압류 등의 국가폭력에 고통 받는 노동블랙리스트, 시민들이 함께 하는 연대체입니다.
- 3월 9일(금)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박근혜 퇴진 광화문캠핑촌' 의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과제들이 만만치 않지만 향후 과제와 과제를 달성했다는 성과를 가지고 광화문캠핑촌은 해단하고자 합니다.[해단 문화제는 3월 25일(토)로 예정]
- 캠핑촌은 3월 20일(월) 13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단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밝힙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1,600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캠핑촌의 상징물들을 '홍물' 이라 비난했던 조선일보로 행진하여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가질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넉달보름' 해단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3월 20일(월) 13시
- 장소 : 광화문캠핑촌(이순신동상 앞)
- 순서 : 사회(이원재, 문화연대)
- 1. 민중의례
- 2. 여는덕담·백기완
- 3. 경과보고·(자료대체)
- 4. 각 단위 발언 : 광화문캠핑촌 촌민발언, 문화예술 발언, 광화문캠핑촌(노동) 발언
- 5. 시낭송 (정덕수)
- 6. 기자회견문 낭독
- 7. 촌장발언·송경동
- 8. 퍼포먼스
- 이후 조선일보로 행진하여 조선일보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구성 :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 넉달보름 일지 / 4.22 비정규직 1만 대행진(가칭)제안

2017년 3월 20일

광화문캠핑촌/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눈물의 광장을 흥물의 광장이라 비웃는 너에게

우린들 모르겠는가.

우리의 삶과 노동과 예술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흥한 사람들이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바다에 가라앉은 게 우리 탓인 것만 같아 얼굴이 더러워질 때까지 운 시민이었다. 야만적인 정리해고와 노조파괴 속에 숨진 동료의 영정을 품고 굴뚝에 기어오른 해고노동자였으며, 가방에 컵라면을 남겨둔 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친구였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고통 받는 이들을 향한 연대의 표현이 예술의 한 본령임을 외치고 실천해왔던 문화예술가였다. 우리는 고통을 직시했고, 고통과 싸우려 했다. 그것은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시공간과 벗하는 일이기도 했다. 우린들 왜 모르겠는가. 따뜻하고 안락하며 향기로운 시공을 향해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차갑고 누추하며 창피함이 가득한 거리에서 악다구니 쓰고 한뼨잠 마다 앓는 나를 거울에서 마주할 때 ‘흥하지 않은가’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100%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문화예술이 융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박근혜의 약속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명과 노동과 예술을 이토록 무도하게 짓밟을 줄은 몰랐다. 감추어진 권력자 최순실과 국정원의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난도질해가며 자본과 권력과 문화로 처바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시민에게 근엄했던 고위공직자들과 노동자에게 사나웠던 자본의 수장들이 최/박 자매 앞에서 한낱 개처럼 굴었다는 사실에 누가 경악하지 않았겠는가. 고분고분하지 않은 시민, 저항하는 노동자, 사회비판적 문화예술가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치졸한 검은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당신들의 법치요, 행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당신들이 겨눴던 건, 블랙리스트 시민 / 블랙리스트 노동자 / 블랙리스트 예술가만이 아니었다. 100%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주권자였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의 뜻을 이제 알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2016년 11월 4일, 작은 텐트를 하나씩 들고 우리는 광장에 모였다. 경찰의 손아귀에 모조리 빼앗기고 맨몸뚱이로 광장의 첫 밤을 지새웠다. 뼈마져 시린 한기를 녹여준 건 이튿날 시민들이 쥐고 나온 촛불의 온기였다. 촛불로 다시 친 텐트였고, 촛불로 만든 마을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허나 매서운 겨울이었다. 봄이 오리라는 놓을 수 없는 믿음, 봄을 부르고 말리라는 다짐이 한뼨잠을 견디게 했다. ‘우리들’은 어느새 더 많아졌다.

추웠지만, 우리의 외침과 몸짓만은 뜨거웠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블랙리스트 예술검열 책임자를 처벌하라! 헌정농단 배후세력 재벌총수 감옥으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악법 철폐하라! 세월호 진상규명 특조위를 재설치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박근혜를 감옥으로! 우리는 외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려냈다. 쓰고, 찍었으며, 무대에 올랐다. 신문을 만들고, 적폐청소를 위한 빗자루를 들었으며, 토론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상상을 멈추지 않으려 했다.

광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우리에게 광장은 ‘섬’ 일 수 없었다. 박근혜 탄핵소추를 촉구하며 국회 의사당으로,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서울구치소로, 블랙리스트 책임자 조운선과 김기춘 구속을 촉구하며 세종시 문화관광부로, 노동탄압 국정농단 배후세력을 규탄하며 삼성과 현대로, 민주주의 파괴의 검은 그림자 국정원으로, 무엇보다 청와대로 달려갔다. 그곳이 우리에게 또 다른 광장이었다. 박근혜의 겨울이 가도, 그곳에 봄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봄은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섯 달,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다섯 달이 흘렀다.

우리가 외쳤던 일들의 일부는 현실이 되었다. 블랙리스트 주범 조운선과 김기춘이 구속되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권력실세의 뒷배를 봐주던 삼성재벌 이재용이 감옥에 갇혔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의 총책임자 박근혜의 시대가 끝났다. 우리 촌민들은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이라는 비상공동체에도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정했다. 오는 3월 25일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은 142일의 노숙여정을 공식 종료한다.

허나 우리는 박근혜 구속과 적폐 청산이라는 남은 과제를 직시하며 각자의 공간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탄압이 활개 치는 세상, 비정규직으로 삶을 저당 잡혀야 하는 세상,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광장의 정신임을 되새길 것이다. 캠핑촌은 공식 해산하지만,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해 광장에 남기로 한 단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연대를 지속할 것이다.

우린들 몰랐겠는가.

가족과 친구가 기다리는 집이야말로 나의 안식처이며,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는 일터야말로 어서 돌아가야 할 삶의 기반임. 오래 사색하고 깊게 바라보며 밀도 있는 작업을 추구해야 마땅한 예술가의 책무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간절하게 바란 건 박근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다. 저 간교한 괴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캠핑촌을 “흉물”이라 부르낼 때, 우리는 실소했다. 잘 보았다, 우리는 흉물이었다. 흉물이 되기를 자처했다. 알고도 흉물이 되었다. 눈물과 저항과 연대의 공동체가 박근혜와 부역자들의 눈에, 한국 민주주의의 적 <조선일보>의 눈에 흉물로 보인 건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안다.

이 고단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한계 또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한겨울 노숙을 감행했던 이 저항운동이 단지 우리의 의지와 실천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연대자의 지지와 응원과 보살핌의 덕분이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흥측한 사회의 흉물이다.

죄인가.

다른 사회, 그것을 간절히 바란 죄.

2017년 3월 20일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촌민일동

[캠핑촌 향후 일정]

예술행동위/캠핑촌 사무국

1. 3월 20일(월) 13시 광화문 캠핑촌 해단 기자회견 /
14시 캠핑촌 악의보도 조선일보 향의 문화행동
2. 3월 21일(화) 14-17시 마지막 광장토론회(캠핑촌 야외무대)
3. 3월 23일(목) 오전 10시 모두 모여 캠핑촌 정리 및 대청소 퍼포먼스 / 18시 해단 뒤풀이
4. 3월 25일(토) 광장 시민들과 함께 <(가칭) 박근혜퇴진 광화문 캠핑촌 '넉달 보름' 그 마지막 낮과밤> 진행 후 최종 마무리.

[박근혜 퇴진 광화문캠핑촌 넉달보름 일지]

11월 4일	블랙리스트 기자회견 후 노숙농성 시작	
11월 5일	광화문 광장 텐트 설치 및 광화문 캠핑 예술행동 시작	
11월 9일	깃발제작소 제작 / 시민참여 깃발제작	
11월 10일	광화문 캠핑촌 블랙리스트 페스티벌 개최	
11월 11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박근혜 퇴진-정몽구 구속 광화문 캠핑 돌입 기자회견	
11월 12일	퐁치우는 날 조형물제작 풍물단체연합 터밧기 터굿 마임공연	파견미술 전국풍물인연석회의
11월 13일	검열-성폭행에 항의하는 '검은시장' 블랙마켓	
11월 17일	하야하락(타틀즈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김대중 손병휘 윈디시티)	
11월 18일	하야하락(테드버튼즈 스트릿건즈 릭스 로만티카 아날로그소년)	
11월 19일	새나라를 여는 길 곳 광장신문 1호 발행(신문대판 4면 칼라, 2만부 발행) 1면 호외 박근혜 하야 발표(손아람 소설가) '새로운 나라' 밀그립부터 주요 과제 만들기 착수...95%위원회' 활동 어떻게(송경동 시인) 2면 함께 보내야 할 것들 '길라임과 17인의 부역자들'(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열골 '박정희 개발독재학'(안수찬 <한겨레21> 편집장) 3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민 '5시 퇴근법에 페미니스트 된 김씨'(장홍배 노동당 정책실장) 우리 안의 박근혜, 뿌리 캐내기(박권일 칼럼니스트) 4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 존중받는 '아녀자' 질주하는 휠체어(이지원 공현 박경석 곽형수 권용식 명숙)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꿈(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야하락(갤럭시익스프레스 킹스턴루디스카 허클베리핀 더 모노톤즈, 엠씨메타)	전국풍물인연석회의 광장신문
11월 22일	'새마을애국퇴근해자율청소봉사단' 활동 시작	
11월 26일	새나라를 여는 길 곳 <광장신문> 2호 구성(신문대판 4면 칼라, 5만부 발행) 1면 박근혜 전격 구속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결정(손아람 소설가) 2면 전경련의 몰락... 재벌 해체까진 '정신 바짝'(김경락 <한겨레> 기자) 96%위원회 '새 나라' 7대 긴급 과제 발표(96%위원회)	전국풍물인연석회의 광장신문

	<p>3면 청소년 힘에 눌러 선거연령 낮춘 국회(밀루 청소년 인권운동 '아수나로' 활동가) "어른들이 망친 나라, 우리가 다시 만든다"(김혜원 동화작가) 4면 화보 누구를 감옥에 보낼 '타임'인가(노순택)</p> <p><하야하락> 전국9개 도시 동시다발콘서트 서울-크래쉬 폰부스 안녕바다 말로 노선택과 소울소스 부산-김태춘 김일두 김광일(언체인드) 스카웨이커스 춘천-소보 일곱시반 노는삼촌 진주-안태상밴드 크립 화요일11시 노약자석 픽업 귀경주의 이상한계절 소리에 대전-버닝햄번 스모킹구스 프리버드 블레스 박홍순 진채밴드 바리톤조병주 광주-삼촌밴드 우물안개구리 김과리 더티라콘 제주-강산에 권순익 김신익밴드 나무꽃 뚜럼부라더스 러피월드 묘한 방승철 밴드홍조 비니 모터 사우스카니발 선경 오버플로우 조성일밴드 조성진 조약골 태히언</p>	
11월 27일	일과노래 콘서트 <고백>	
11월 29일	광장토론위원회 구성, <광장토론01_박근혜퇴진을 위한 광장의정치와 경로>	
11월 30일	박근혜 조형물 제작	파견미술
12월 1일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곳(~12월 3일까지)	
12월 3일	<p>시국퍼포먼스 '옴!'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곳 <하야하락> 전국7개 도시 동시다발콘서트 서울-블한당(MC메타 나찰 피타입 닛업산 마이노스 키비 라임어택 옵티칼 아이즈엑셀 DJ스 킵) VMC크루(딤플로우 녀살 던밀스 우탄 오디 DJ티케이) ADV 크루(JJK 울터 루고 리플 로 DJ젠드릭스) 허클베리피 루그페이퍼(쿤타 알디 케본) 아이삭 스쿼브 대전-어쿠스티&박창룡 스모킹구스 흑시몰라 파인애플밴드 소리여행 이희원 진채밴드 블래스 부산-이스트로너즈 브룩스 뱅크럽츠 사이드카 춘천-타카피 녹우 김성호 아이보리코스트 에 잇볼렛 참고육밴드 나눔의집 합창단 대구-튜나스 옐로우 제주-조성진 소금인형 모다정 강릉-엘리펀디와 친구들(엘리펀디 풍키몽키 프렌즈) 삶은 노래</p>	<p>주류아닌 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p>
12월 6일	<p><광장토론02_진짜 퇴진을 위해광장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p> <p>근혜퇴진호 제작 <광장신문> 2.5호(신문대판 4면 칼라, 2만부 발행) 1면 박근혜 전격 구속 정몽구 구속영장 청구 결정(손아람 소설가) 2면 전경련의 몰락... 재벌 해체까지 '정신 바짝'(김경락 <한겨레> 기자) "과건법 통과시켜 불법과건 해결해달라"(박점규 기자) 3면 김씨, 난생 처음 민주공화국을 맞보다(장홍배 노동당 정책실장) 우리 안의 박근혜, 뿌리 캐내기(박권일 칼럼니스트) 4면 화보 누구를 감옥에 보낼 '타임'인가(노순택)</p>	<p>파견미술 광장신문</p>
12월 8일	<p>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 '박근혜 즉각 퇴진 및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수사 촉구'</p>	
12월 9일	희망촛불 조형물제작	미술행동
12월 10일	<p>시국퍼포먼스 '옴!'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곳 <광장신문> 3호 구성(신문대판 4면 칼라, 2만부 발행) 1면 "나도 재벌 할 걸...자괴감" '본지, 박근혜 옥중편지 단독 입수'(박민규 소설가) 2면 박근혜 퇴진 이후 진화하는 직접민주주의(송경동 시인) 낡은 정치 전복시킨 대안민주주의 외국 사례(조일준 한겨레 국제부 기자) 3면 복되도다, 잉여로움.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세상(장홍배 노동당 정책실장) '386 친권자' 둔 청년이 '부심' 찌는 기성세대에게(공혜원 촛불집회 참가자) 4면 화보/ 잘라라 약자에게만 가혹한 그 손을(노순택) <광장토론03_탄핵 이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p>	<p>주류아닌 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광장신문</p>

	박근혜 즉각 퇴진 퍼레이드	
12월 12일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 고발' (특검 사무실 앞)	
12월 13일	<광장토론04_평등한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2월 14일	<양심수를 위한 연대의 밤>(서울구치소)	
12월 17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12월 20일	<광장토론05_탄핵 이후 광장정치의 문화적 의미와 예술운동의 방향>	
12월 21일	정몽구 이재용 조형물제작	과건미술
12월 24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1 차벽공략project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공립현대미술광장> 개관전시 "내가왜"(~1월 13일까지)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공립현대미술광장
12월 27일	<광장토론06_재벌총수 즉각구속, 재벌해체와 삶의 변화>	
12월 29일	기자회견 <조운선 사퇴 및 구속수사 기자회견> 광장극장블랙텐트 운영위원회 1차 회의	블랙텐트
12월 30일	<공립현대미술광장>개관식 박근혜 정권 열사, 희생자 추모제 <광장을 비추는 별>	공립현대미술광장
12월 31일	시국퍼포먼스 '옳!' 광화문 새날맞이 곳 촛불광장 Project-2 차벽공략project 촛불이 국민의 명령이다! 광장극장블랙텐트 운영위원회 2차 회의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블랙텐트
2017년		
1월 2일	광장극장블랙텐트 운영위원회 3차 회의	블랙텐트
1월 7일	시국퍼포먼스 '옳!' "빼앗긴 극장, 이 곳에 세우다, 광장극장 <블랙텐트>" 새나라를 여는 길 곳 블랙깃발 제작	주류아닌예술가들 블랙텐트 전국풍물인연석회의
1월 10일	<광장토론07-2017 촛불에 바란다> 광장극장블랙텐트 개관식 '노동블랙리스트, 검은 거래를 부쉬라' 기자회견	토론위원회 블랙텐트
1월 11일	<블랙리스트 버스>(세종시 정부청사, 1박2일, 1월 12일까지) 쌍용차해고노동자의 집 제작 김기춘 조운선 조형물제작 블랙텐트 천막 그림그리기	과건미술
1월 13일	광장극장블랙텐트 개관기념공연	블랙텐트
1월 14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4 차벽공략project 응답하라! 1987! <공립현대미술광장> 촛불항쟁사진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김명진(한겨레)김도훈(연합)조성봉(뉴스)이정용(한겨레)윤성호(국민)김성룡(중앙)신선영(사시인)이승환(매경)권우성(오마이뉴스)정지운(경향)장승윤(동아)한종찬(연합)임태훈(뉴스)조수정(뉴스)박승화(한겨레21)신용수(뉴스원)오종택(중앙)조우혜(프리랜스사진)정택용(사진가)양지용(포커스)이승배(포커스)안상진(사진가)변백선(노동과세계)이치열(미디어오늘)윤성희(사진가)문병희(더팩트)정기훈(매일노동뉴스)노순택(사진가)이기범(언론노조)조승진(노동자연대)최윤석(오마이뉴스)이미진(노동자연대)양지용(민중의소리)최형탁(프리시안)김진석(사진가)박상훈(조선)김성현(사진가)정병혁(대학생)류영주(대학생)박민석(대학생)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공립현대미술광장

1월 16일	블랙텐트 시즌1 (~2월 3일까지) <빨간시>, <그와 그녀의 옷장>, 마음; <노란우산, 푸른아이> <여자, 女子> <어루만지는 몸, 꽃> <전봉준> <집수사 이야기> <모래아이, 나비> <아빠, 엄마의 바다> <접촉> <어른> <걸음을 멈추고> <인생>, <검열언어의 정치학 : 두 개의 국민>	블랙텐트
1월 20일	유성기업 노동자의 집 제작	파견미술
1월 21일	시국퍼포먼스 '옴!' <광장토론08_광장정치를 둘러싼 정세와 대응전략> 촛불광장 Project-5 차벽공략project 동녘이 밝아 온다!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주류아닌예술가들 토론위원회 미술행동 전국풍물인연석회의
1월 24일	<광장토론09_대안언론과 광장의 정치> 광장극장블랙텐트 포럼	
1월 28일	시국퍼포먼스 '옴!' 노동자+블랙리스트 합동차레 새해맞이행사 촛불시민만복래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주류아닌예술가들 미술행동 전국풍물인연석회의
2월 1일	<공립현대미술광장> 광장 목판화전(2월 14일) 김동인 김봉준 김준권 김억 류유중 류연복 박구환 박홍규 서인희 손기환 안혜자 유대수 윤여걸 이연정 홍익중 홍진숙 홍선웅	공립현대미술광장
2월 4일	시국퍼포먼스 '옴!' 새나라를 여는 길 곳 블랙텐트 특별상영회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촛불광장 Project-6 차벽공략project 새로운 나라로! <광장신문> 4호 구성(신문대판 8면, 4개면 칼라, 5만부 발행) 1면 탄핵, 이젠 재벌 차례다. 재벌의 추역 <노동자연쇄살인극>(손아람 소설가) 국회가 로두스다 의원들이 뛰어라(김수민 전 녹색당 시의원) 2면 1면에서 이어짐) 우리들의 합성, 재벌 해체할 준비 되었는가 황상기(삼성전자 고 황유미씨 아버지) 국석호(유성기업 고 한광호씨 유족) 인터뷰 3면 1면에서 이어짐)탄핵 뒤 손놓은 국회, 광장 뜻 잊었는가 4면 콜트콜택유성쌍용차... 광장의 킹왕짱 노동자들(명지현 소설가) 미술팀·공연팀·토론팀 문화예술로 피운 촛불(김금영 언론인) 5면 블랙리스트 찢고 나와 낙인의 정치 끝장내자(천명관 소설가) 6면 '태극기 집회' 관찰보고서(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7면 광장에 한계는 없다, 낙인을 두려워 말라(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8면 화보/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노순택)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광장신문
2월 6일	기자회견 <천박한 정치인들은 더러움잡에서 깨어나라> 블랙텐트 시즌2(~3월 3일까지) <씻금>, <광장 꽃, 피다!>, <노란봉투>, <길을 묻다>, <킬링 타임>, 무용 : <개구리> <목음> <슬픔 속으로> <유랑 - 이름없음의 이름> <Puzzle 퍼즐> <내 팔을 백원에 팝니다> <물의 꿈 : 빛을 향하여> <승무> <망나니춤> <엇중물이 신칼대신무> <우포 따오기춤> <살풀이춤> <허튼 덧배기춤> <벽사진경 사자놀이> <영남 말뚝이춤> <산천초목> <송파산대놀이 노장춤>, <33한 날에 : 29개 팀>	블랙텐트
2월 7일	<광장토론10_광장정치의 과제 : 촛불의 정치화>	토론위원회

2월 9일	광장학교 : 광장, 혁명을 말하다	토론위원회
2월 10일	촛불광장 Project-7 대선? 탄핵이 먼저다! 오픈에어갤러리 전시 천만촛불 시와 사진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차 행진(~2월 11일까지)	미술행동 미술행동
2월 11일	시국퍼포먼스 '옹!'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8 黑雲萬天 天不見 <하야하콧> 일쑤! 탄핵하세! 국악콘서트 윤주희와 소우주양상블 김기영 오단해 허창렬과 더광대 양상블시나위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2월 14일	광장토론10_적폐청산과 새로운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광장의 제안 광장미술전 "A small movement is a great miracle"(~2월27일까지) 권홍 김기호 강성봉 김종찬 박영균 박은태 변대섭 박일훈 박준모 류우종 서수경 성효숙 오 은주 이선일 이오연 이원석 이재민 이해균 임영준 정세학 정평한 차진환 황정경 현용안 이 영학 박충의 김성수 임영선	토론위원회 궁핍현대미술광장
2월 18일	시국퍼포먼스 '옹!'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9 오픈에어갤러리 전시 '黑雲萬天 天不見' <하야하콧> 죄와 벌 힙합공연 이그니토,허거노마 반블랭크,로벤,익스에이러,덴클락 DJ티즈 다이알로그 최삼 만수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2월 24일	청년의 짐, 재벌 쓰레기 조형물제작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2차 행진(~ 2월 25일까지)	파견미술
2월 25일	시국퍼포먼스 '옹!'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10 입을 위한 행진곡 <하야하콧> 벌받아 콧 콧밴드공연 로멘틱펀치 스카웨이커스 전국비둘기연합 태히언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2월 28일	<궁핍현대미술광장> 일곱 빛깔 투쟁전(~3월 14일까지) 정택용 이운엽 노순택	궁핍현대미술광장
3월 1일	촛불광장 Project-11 민주주의 촛불공화국 만세! 대동놀이	미술행동
3월 3일	<추모문화제> 한광호의 사계절	
3월 4일	시국퍼포먼스 '옹!'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촛불광장 Project-12 역사, 광장 민주주의 광장극장블랙텐트야외퍼포먼스 <우리가 헌법이다_숨+구명조끼304+헌법퍼포먼스>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블랙텐트
3월 6일	광장극장블랙텐트 페스티벌 '봄이 온다' (2017. 3. 6 ~ 3. 9) <꽃 할머니>, <신문지 이야기>, <민중가요, 포크콘서트>, <변화> <후시거나 포켓또>, <소곤소곤 콘서트>, <내 아이에게>, <불온한 상영회> <심장이 뚱다>, <거인>, <짧은, 그리고 영원한>, <우리시대의 연인> <결혼굿>, <배의 밤이>, <닭잡고 한마당>, <망명바다>	블랙텐트
3월 7일	광장토론11_박근혜 탄핵과 한국사회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 사태와 공작정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토론위원회
3월 9일	황교안 조형물제작	파견미술
3월 10일	<성소수자 촛불문화제>	
3월 11일	시국퍼포먼스 '옹!' 촛불광장 Project-13 촛불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나라를 여는 길 곳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퍼레이드	주류아닌예술가들 미술행동 전국풍물인연석회의
3월 14일	<궁핍현대미술광장> 촛불역사전(~3월 21일)	궁핍현대미술광장

	곽명우 권홍 김문호 김이하 노순택 라운지 박영환 양시영 엄상빈 이정환 전민조 정영신 조문호 채원희 최연택 하형우 한이정 홍윤하 이재민 큰곰대장의 촛불시민다수	
3월 16일	광장극장블랙텐트 토론회, 파티	블랙텐트
3월 17일	광화문미술행동 천막철거	미술행동
3월 18일	광장극장블랙텐트 천막 해체	블랙텐트

- 1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낮전춤 시작
- 매주 금요일 : 박근혜 구속 금요 춤교실
- 매주 토요일 : 낮전춤 , 길거리 붓글쓰기(18회차), 촛불시민 걸개그리기 등 실시

[별첨]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4.22 비정규직 1만 대행진(가칭)을 제안합니다!

1.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었다. 1600만 촛불은 특권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든 부정한 세력을 끌어내렸다. 불의한 경제권력의 상징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킨 힘으로, 마침내 사악한 자본가 정권의 우두머리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승리했다.

2. 승리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광화문에 첫 촛불이 타오르기 훨씬 전부터 박근혜 퇴진을 걸고 더 쉬운 해고, 모든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정책과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자들. 고단한 일을 마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든 청년들. 박근혜 퇴진을 걸고 공동투쟁 1년 6개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40여일째 천막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노동자들. 광화문광장을 박근혜 퇴진 투쟁의 진지로 해방구로 만들어 낸 캠퍼촌 촌민들.

세월호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교과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사드를 철회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민중의 들불과도 같은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총수 구속과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외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행진한 비정규직-해고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박근혜 없는 봄, 노동자 민중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 불평등과 특권이 사라지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중심에는 비정규직이 있다. 하청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 알바노동자, 공공부문등의 비정규직을 합하면 무려 1110만 명이다. 가장 힘들고 고된 노동을 가장 오랫동안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덮어두고 청와대 주인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4. 자동차에 들어가는 감지센서와 전자제어장치를 만드는 만도헬라를 보자. 만도가 2008년 만든 이 회사의 정규직은 관리자 30명뿐이고, 생산직 345명은 모두 파견사원으로 정규직 0명 회사다. 기아자동차 모닝, 현대모비스 12개 사업장 중 8개, 현대위아 6개 사업장 중 4개가 비정규직만 일하는 회사다. 현대기아차와 부품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정몽구는 불법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시작한 사내하청 불법파견은 부품사, 2-3차 하청으로 급속히 전염됐다.

5. 생산직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전국 187개 서비스센터 중 직영점은 단 8개, 179개 센터 6000명의 수리기사가 모두 비정규직이다. 삼성에서 시작한 수리기사의 비정규직화는 모든 기업으로 퍼져나가, 정규직 기사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자. 판매, 청소, 식당, 경비, 사무, 건설, 화물, 학습지... 안정된 일터,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열차에 치어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건물에서 떨어져죽은 사람들 대다수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일터의 하청화는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졌다.

6. 정규직이 일하던 자리를 계약직과 하청노동자로 대체하는 직장의 비정규직화, 일터의 하청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다.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리해고, 파견법,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화에 물꼬를 텄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비정규직 세상을 만들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뇌물수수,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인 정몽구는 조사도 받지 않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진영은 비정규직 1100만 시대

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악성노조’로 힐난하고 ‘전문시위꾼’이라고 나발댄다.

7. 촛불은 불평등에 대한 분노였다. 1% 자본가와 특권층이 모든 것을 가지고 99%가 착취받고 고통받는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절규였다. 불평등의 중심인 비정규직 문제가 적폐 청산 제1의 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악성정치는 언제 촛불이 있었냐며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에 골몰한다. 특성화고 여고생을 통신사 콜센터 하청업체의 ‘육박이 부서’에 보내 실적을 압박해 죽음으로 내몬 LG, 서울고등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도 일부 선별채용이라는 ‘불법 고용’을 계속하는 현대기아차, 직업병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부품회사에서 메탄올에 중독돼 6명이 실명을 당했는데도 사과조차 없는 삼성을 그대로 두고서 노동자 민중의 봄은 오지 않는다.

8. 촛불이 다시 타올라야 한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가장 착취당하고 고통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동자들이 일어서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완전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대행진을 벌여야 한다. 대통령선거, 다시금 대리인을 세우려는 자본가 계급과 ‘악성 정치권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을 각인시켜줘야한다. 4월22일 청소노동자들의 대행진이 벌어진다. 이날 설치-수리기사 대행진, 하청노동자 대행진, 서비스노동자 대행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대행진을 벌여내자. 비정규직과 시민이 만나 1만 대행진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자.

<제안 내용>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4.22 비정규직 1만 대행진’

- 언제 : 2017년 4월22일(토) 13:00
- 어디 : 여의도 → 광화문
- 어떻게 : 직종별로 행진을 벌이고, 다 함께 모여 대행진 진행

※ 비정규직 1만 대행진 준비회의 : 3월23일(목) 16:00 경향신문사 16층